

성체와 성혈 대축일

기도서 320면

- 제1독서: 출애 24, 3-8
- 제2독서: 히브 9, 11-15
- 복음: 마르 14, 12-16  
22-26

# 숲정이

발행처: 전주교전주교구  
편집: 사목국  
인쇄: 관리국

편집실: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교구청  
☎ 5098 3201

□ 강론



## 「오, 사랑과 구원의 신비여」

성태수 신부

왜, 우리는 자주 미사에 가야 하고 또 주일미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가?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 가끔은 생략(?)해도 좋지 않겠는가. 귀찮은 의무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과 영광의 권리가 되게 할 수는 없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 이후, 대대로 어떻게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냈는지 또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계약을 맺으셨는지 묵상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해방절을 가장 큰 축제로 지내왔다. 그러나 단순한 기념 축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현존과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손길에 대한 신뢰와 희망과 사랑의 축제였다.

구약의 구세사는 예수께 와서 완성을 이룬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의 그분의 죽음은 참된 의미의 출애굽 사건을 완성하는 순간이다. 영원한 부활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예수께서는 잡히시기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에 십자가상의 구원 사건을 앞당겨 새 계약을 이루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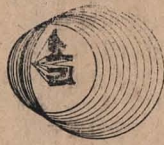
구약에 있어서의 수송아지나 그 피로써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상에 달리신 당신의 몸과 흘리신 당신의 피로 맺은 하느님과 인류 사이에 맺어지는 영원한 새로운 계약이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날 즉 일요일마다 한방에 모여 주의 만찬을 행하였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 20)고 말씀하신 주님의 현존을 깊게 체험하였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에는 하느님의 힘과 능력이 있다. 과학적으로 성체성사를 분석하려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다." (요한 6, 63)

예수께서는 우리들을 찾아 오신다. 영원히 우리들 사이에 살기 위해 오시는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 생명은 성장한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요한 6, 57)

미사가 우리에게 결코 짐스러운 시간이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두고 두고 성체성사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며 사도 바울로처럼 외칠수 있어야 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 2, 20) 우리는 감사의 증계송(시편 115장)을 마음으로부터 노래해야 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었으로 주님께 감사오리, 구원의 잔 받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사목국 차장)



## 아직도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지만 구태의연한 연철이 반복되는지라 문제인 것이다.

산골로 알려진 J군에서는 교사가 어린 여학생에게 천주교회에 나가는 것을 염려(?)하는 만류가 있었다고 한다. 이리에 있는 태창선유에서는 J.O.C 회원이라는 이유로 나이 어린 처녀들이 공장에서 쫓겨난 사건이 발생했다. 왜 아직도 이러한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참으로 정의로운 복지 민주사회의 모습이어야 하기에 그러할까? 진리와 정의를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외로운 길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한다.

어린 여공들의 한숨어린 일지를 보자. -"J.O.C 교육을 받으면 사회주의 사상이 머리에 배어든다"는 생산부 모 계장의 이야기(5월 15일). "신부가 사회주의 이론에 몰들어 있으며..."라는 모 차장의 이야기(5월 18일).

J.O.C는 물러가라. "때리는데 상처가 나지 않게 때려라." 밖으로 끌려나온 22명은 작업장 현장으로도 들어갈 수 없었고..., 신발을 신지 못한 조합원, 옷이 타지고, 살갓이 까지고, 멍들고, 분하고 억울하고 서러워 울면서 창인동 천주교회를 찾아갔다. 도대체 J.O.C가 회사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빨갱이 같은 곳인지 물어보려 갔다. 회사에서 前위원장 박복실과 소비조합에 있는 소기화를 해고시키다. 창인동 신부님으로부터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야 하며, 우리의 본분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니 다시 현장에 가서 일을 하라는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오후 3시에 회사로 돌아오다(5월 31일) - 이 소리에서 무엇일 느끼는가?

새시대에도 계속되는 순교의 의미를 배우자. 그리고 고통받는 오늘의 예수님 편에 서자.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이다.

## 숲정이 산책

조용하게 화해합시다!



# J.O.C가 탄압받고 있다!

# 기쁨의 생활

이 영 자

왜곡된 매스컴의 보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빛나간 정책, 불황의 탓을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뒤집어 써우려는 권 근대적 작태, 기업의 횡포로 판의 술책인가? 요즘 이 지역 노동사회에 심상찮은 먹구름이 일고 있다.

평지풍과 아니되게 두어달을 참고 애쓴 보람도 없이 급기야 J.O.C(가톨릭 노동청년회) 탄압이라는 대 불상사가 교구내 처음으로 빚어졌다. 지난 4월 초부터(원 주사태와 사선협 성명서 발표 직후) 모 정부기관에 의해 비밀리에 착수된 J.O.C 탄압 음모는 끝내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회원들을 일터에서 쫓아냈는가 하면, 이제 갖은 모략과 비방으로 J.O.C 축출 내지는 교회까지 음해하는 양상으로 치달고 있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가? 소위 새 시대 새 정부의 정화라는 것이 교착 이런 것이란 말인가? 민주와 반공을 앞세우는 정부가 그 친봉장인 종교와 근로자를 꺾박하는 이런 작태를 조 장 내지 묵인하는 처사를 도시 남뜰할 수 없다. 오늘의 간신배를 처단하라!

우리는 최근에 있었던 다음의 탄압사태에 즉각적인 시 정과 개선이 있기를 정중히 촉구한다.

1. 13년 동안이나 말 없이 전복여객 내 작은 정비공장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오 창석(가시미로)군은 단순히 J.O.C 전주교구 회장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 기관의 압력으로 억울하게 해고 됐다. 10여년을 같이 살아 온 영세 사장의 안타까운 사연(J.O.C를 그만두고라도 함께 일 하자)에도 불구하고 관의 협박에 밀려 쫓겨난 것이다.

2. 이리 공단 내에 있는 태창섬유(주)에서는 J.O.C 회원들이 700여명의 노동조합 조합장 또는 열심히 회원 이라는 낙인(?)때문에 어처구니 없게도 박 복실, 소 기 화, 문 진주양 등 9명이 무단 해고와 강제 축출을 당하고 있다. 심지어는 선량한 근로자들까지 매수, 총동하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노동조합을 파괴하는 난동까지 부리게 이간질을 시키는가 하면, J.O.C를 '빨갱이 단체'라고 왜곡 비방을 일삼으면서 기관과 회사가 합세, 공포 분위기를 조성시키고 있다. 근로자들에 의해 그들의 대변자로 선출 돼 그들을 위한 조합활동을 행한 것이 죄란 말인가?

J.O.C는 노동사회에 복음을 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보고 판단하고 실천하므로써, 노동의 고귀함과 그 귀한 사명 아래 사랑과 봉사로서로의 이익과 발전을 추구 하는 우리 천주교 공인 단체다. 현대, 공산당 근성이 없 고서야 뭐 이를 꺾박하랴?!

우리는 주시한다. 그리고 이제라도 속히 이성과 양식을 되찾아 나약한 근로자들의 권익을 회복해주고 대 화합의 장을 이루기 바란다. 지역의 평화와 모두의 안위를 위해서...

노오란 개나리가 담장 밑에서 춤을 추고 있던 어느 이 른 봄철의 일이다. 내 옆구리에 끼고 있는 두툼한 성경 책을 본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면서 "무슨 책이 그렇게 두 껍지? 몇 번이나 읽었니?" 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학창시절 영어 콘사이스를 끼고 다닐 때처럼 아무런 의미 없이 들고 다닌 성경책이 갑자기 나를 신앙의 위신자로 만드는 것 같은 부끄럼을 느꼈다. 하느님의 존 재와 성경이 무엇인지조차도 모르는 친구가 몇 번이나 읽었느냐고 물어왔을 때 정말 얼굴이 뜨거웠던 것이다.

나는 그때부터 꼭 성경을 한번이라도 읽고나서 길에서 만난 그 친구에게 하느님 이야기를 해 주리라 굳이 마 을먹었다. 또한 내 귀여운 자식에게도 이 생명 넘치는 진미फल 맛보게 하고 그 말씀에 맛드리게 본을 보여주어 야지 하고 다짐했다.

나는 정말 이 '성서모임'이 있고 나서부터 마치 내가 하느님과 속삭이고 있으며, 아담이 되어보고 솔로몬, 다윗도 되어버리는 착각이 들 정도로 이스라엘 역사속에 묻히는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자리에 들었을 때도 그날 그날 읽어 본 성경구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간다. 하루의 내 생활이 성경의 책장을 밟아가고 있는 것 처럼 하느님께서 나의 신발끈을 잡아주시며 쓸모 없는 인간을 축복의 근원 자체로 이끌어 주시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

"사과는 빨간 색이고, 맛은 시며, 영양은 비타민 C"라 고 아무리 말해 해도 먹어보지 않고는 그 참 맛을 모르 듯, 성경이 아무리 좋은 책이라 해도 읽어보지 않는 한 결코 그 생활속에 흐르는 기쁨과 환희를 맛볼 수는 없을 것 같다.

그 친구를 만나면 나는 이제 꼭 들려주리라. 옛날에 하느님을 빗한 아브라함과 모세가 있었고, 롯과 같이 착 한 며느리도 있었다고... 그리고 하느님이 너를 왜 만드 셨으며, 너는 왜 하느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속삭여 보리 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전동 분당)

## ◎ 최 기 식 신 부 첫 공 판

이 불운한 시대, 온 국민의 관심과 주시 속에 사 랑을 위해 결박된 '양심수인' 최 신부가 드디어 첫 재판판을 맞는다. 아니, 교회를 단죄한 오늘의 빌라 도 법정이 부산에서 그 폐회한 막을 연다고나 할 까? 아무튼 두고 볼 일이다. 오는 14일 오전 10시 사전 신청을 해야 방청이 허용된다니, 그 뒷 소리 나 또 귀 기울여 보자.

금·은·보석·시계

### 일 성 당

정읍 중앙동  
제일아카데미 내  
전화 6429  
송 베드로(판물)  
남 베로니카

☐회 소 식

### 독사뱀 물린데 단시간 치료

◎ 백발 백중 완쾌

전주시 전미동 1가397번지  
<전당리 시내버스 종점  
정미소 뒷집>  
☎ 5-3544  
송준의(발라바)

(SS) FASHION

### 三星物産 전주 특약점

신사복·영국모드      세계적인 코트의 명문  
버 킹 검 런 던 포 그

(주) 유 율리안나  
전주시 중앙동 3가 96-2  
삼화약국 옆  
전화 ② 4451

간이복·성인용  
아동용·주니어  
위 크 엔 드



## □ 부안축협의 도입소 구입자금 회령 사건, 왜 못푸나?

공정한 조사와 처리를 통해 정의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달라고 억울한 사정을 법에 호소했으나, 법의 한계 때문에 구제받을 길 없는 한 촌부의 피맺힌 호소가 있다.

어려서 병마와 싸워 하반신이 마비된 채 목발에 의지하며 50여 평생을 어렵게 살고 있는 농민에게 정부에서 도입한 소를 구입해 주겠다고 축협 직원과 조합장이 '공모, 1천여만원을 착복하고 직원만 구속된 채 피해 농민에게는 보상대책이 없어 교구 정의 평화위원회의와 농민회에 사건을 알려왔다.

교구 정경과 농민회는 부안 축협사건의 공정한 처리와 보상대책이 마련되는 과정을 주시, 대책을 수립키로 하고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를 위해 교우들의 관심과 성원 있기를 촉구했다.

피해 농민은 전북 부안군 부안을 서외리 4구 50-4 김 영식(베드로)씨이다.

## □ 3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청소년은 우리의 보배, 내일의 장한 싸들이다. 숨 쉴 겨를도 없이 밤낮 책과 씨름하느라 모두 안방 샌님들이 됐던 하얀 얼굴들이 이 날만큼은 온통 혈기로 빨강계 달아 올랐다. 운동장(농고)도 마당(창인동)도 터질듯 흔들리고.

지난 6일 창인동, 주원동, 삼배, 금마 4개 본당 학생회 300여 젊은 싸들이 이리에 모여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로서 우의에 찬 대 제전을 펼쳤다. 배구, 농구, 테니스, 족구...모두 신나게 뭉쳐 본당과 지구의 결속, 단합을 과시했다. 더구나 시상은 미리 화합이라도 한듯 사이좋게 골고루 하나씩 받아 한껏 친교를 두텁게 했고, 흐뭇해 하는 신부님들과 교형들의 박수 소리 또한 요란했다.

## □ 사목국 수녀님 경질

지난 2일부터 사목국 홍보과에 근무하던 김 막달레다 수녀님이 본원으로 귀임하고 세로 주보 및 홍보 담당에 오 프란체스카 수녀님이 부임했다.

성 바오로 여자 수도회는 그간 임시로 정했던 본소임에 본원 축전부와 시청각을 담당하며, '듣·봄치'를 편찬하던 오 수녀님을 급번 정식 발령한 것이다. 오교가신 수녀님을 위해 축복을 빌어드린다.

## □ 평협 2지구 방문 낙수

본당 공동체의 해를 맞아 교구 평협에서는 교구와 본당 상호간의 일치 협력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방문 사도직에 나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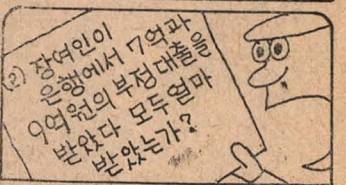
지난 5, 6일 평협 임원 4명은 한 조가 되어 1착으로 제2지구(군산·옥구) 각 본당을 순회했는데, 본당마다 모두 밀려오는 신자들이 성당이 좁아 즐거운 비명을 지르는 모습에 우선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더우기 2지구는 하나 같이 반 모임에 열을 쏟고 있었으며 모두 다 새 교회같은 꿈을 안고 알찬 본당 건설에 열심, 뜻을 모으고 있었다.

한편 각 본당은 또한 평협 재정자립을 위한 회비 분담에도 신뜻 완납해 주는 친절까지 보이고 「성지」 책도 즉결 배부, 정말 활기에 그득한 일면들이었다.

이모저모 우리들의 방문은 뿌듯하고 감격스럽기 그지없었다. 모두에 감사드린다.

〈源〉

## 요심이 (462) 김병오



꽃과 음악  
휴식이 있는 곳

## 전주 꽃 직매장

코너별 판매 안내

생화 화분 꽃꽂이...진신미 꽃집  
도자기·토산품.....관광 토산품부  
조화·드라이 플라워...조 화 부

※ 부설 :玉器라워 전주지방장  
직접 개인지도

이예순 꽃꽂이 연구실

꽃을 가꾸는 마음은  
사랑을 가꾸는 마음  
꽃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꾸며 보았습니다  
오셔서 보살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개업일시 : 1982. 6. 19 오후 1시

MBC 인기탈렌트

박 근형 1일 판매 실시

이 마리아(명자) 범 띠모(떡배)

□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절을 찾아주세요

## 금 보 장

(전,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대지탕 입구)  
전화 ④4989(사구팔구)

## 대한 도장 공사 지하수 개발공사

〈노루표 페인트 대리점〉  
대형기계 보링, 지하수개발  
각종 페인트칠 전문, 페인  
트 판매, 기타 일절  
전화 ④ 4874  
김 의 화(요셉)

주단·포복(훈수·회갑옷  
감)도매상  
각종 솜, 이불(명크)카렌지  
도매상

## 서울 주 단

전화 ③ 0453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 안토니오

###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성바오로 서원 소식 : 6월 13일부터 일요일은 오후 4시까지만 문을 열겠습니다
2. 전주지역 푸르실로 윌레회(올드레아) : 일시-14일 <월> 오후 7시 30분, 장소-가톨릭센터
3. 평협 방문 사도직 : 12일-수류·원평, 13일-여산·금마·삼례, 19일-순창·남원, 20일-무주·장계·장수
4. 안 용기 신부님 출국 : 8일, 사목연수차 필리핀으로 떠나셨습니다
5. 4지구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 일시-13일 오전 8시 30분, 장소-해성학교 운동장 집결
6. 1지구 교리교사 윌레회 : 일시-13일 오후 2시, 장소-정읍성당

#### (중앙)

전화 ②1711~3  
수업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인호  
사도 회장 김활인

#### (서학동)

전화 ③2276번  
주임 신부 김활인  
사도 회장 김활인

- ◎ 성경읽기 : 판관기
1. 중앙성당 25주년 기념 성전건립 : 기도합시다  
신입합시다-본당신부님께 전화 혹은 면담
  2. 금암성당 기공미사 : 18일 오전 10시 30분  
금암동 중앙도서관 옆 (본당에서 어머니미사 없음)
  3. 꾸리아 옥외행사 : 20일
  4. 성모회 : 20일 공식미사 후
  5. 예비자 종합교리 : 22일~26일까지
  6. 사마리아회 : 23일 11시
  7. 유아세례 : 25일 10시 30분 어머니미사 후
  8. 4지구 전체 전모임 : 13일 오후 2시 30분 중앙성당
  9. 중앙성당 2재(여고생·미혼여성) 모임 : 매주 토요일  
7시 사제관 2층
- 지난주 봉헌금 : 646,200원

#### (순정리)

전화 ③7366  
수·유 ③9567  
수업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김수걸

1. 반장님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  
반장님께서는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할머니 모임 : 다음주(20일) 공식미사 후
  3. 꾸리아 모임 : 오늘 오후 2시 회합실
  4. 성심회 : 오는 6월 13일 성심회 모임 연기합니다  
모임일자 다음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5. 가정방문 : 4반, 16~17일
  6. 레지오 옥외행사 : 내일(14일), 출발시간-새벽 6시  
시간엄수 바람과 각자 도시락 지참하여 시간내에 본  
당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김수걸 ②김한기
- 지난주 봉헌금 : 236,875원 교무금 : 154,000원

#### (노송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성원  
보좌 신부 박성홍  
사도 회장 이홍재

1. 꾸리아 회합 : 오늘 오후 2시  
각 팀의 간부님들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2. 성모회 윌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어머니 합창단 모임 : 매주<화> 어머니미사 후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성가정회 모임 : 16일<수> 저녁미사 후
  5. 금주의 성경읽기 : 역사서에서 사무엘 하편 전체
  6. 신우회 윌레회 : 오늘 저녁미사 후
  7. 대학생 모임 : 매주<금> 저녁 7시 30분
  8. 예비자 교리안내 : 일반팀-매주<일> 공식미사 후  
남자팀-매주<목> 저녁미사 후  
학생팀-매주<토> 오후 4시
  9. 전모임 : 매주<토> 오후 5시, 미사-매주<일> 오전 9시
- 지난주 봉헌금 : 301,635원

#### (전동)

전화 신부 ②6208  
사무 ③2222  
수녀 ②8347  
수업 신부 김병업  
보좌 신부 박준두  
사도 회장 이종두

1. 자모회·장우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화회 피미시움 : 다음주
  3. 휴먼강좌 : 27일 오전 9시부터, 송광사 자연의 집
  4. 전 모임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5. 첫 영성체 교리 : 7월 2일 오후 5시 첫모임
  6. 신축기금 : 권의구·조미자(각 10만원), 우덕순·이  
금우(각 5만원), 안종기·홍의덕(각 3만원), 김돈중  
·정선임(각 2만원), 권영숙·박삼례·김숙자·이훈  
례·최소례(각 1만원)
  7. 다음주 전례담당  
아침미사 : 해설-박종구, 독서-①이현재 ②김창선  
공식미사 : 해설-서정옥, 독서-①신일균 ②고수창  
저녁미사 : 해설-경양수, 독서-①이영철 ②변해식  
신자들의 기도-정순복(아네스)
- 지난주 봉헌금 : 545,565원

####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안철문  
사도 회장 양상열

1. 오늘은 애령주일입니다 : 먼저가신 선영들을 위하여  
미사 봉헌합시다  
※ 미사후 애령회 모임 가입희망자 포함
  2. M. B. W 묵상회 :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저녁 6시  
30분~10시 30분까지. 5일간  
본당내 사도회임원 및 진부회 회원은 꼭 참석 바람  
(부녀부회원 포함). 본당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3. 중·고생 체육대회 : 해성학교에서  
많은 응원과 협조바랍니다
  4. 오늘 2시 예언자의 모후 꾸리아 회합  
각팀 단장님, 부단장, 회계, 서기님들은 꼭 참석
  5. 젊은이의 모임 : 주일 저녁 7시 30분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모여 뜻있는 주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 지난주 봉헌금 : 442,250원

####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사도회장 황희상

####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준택  
사도 회장 조성호

1. 성우회 임시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자모회 : 6월 21일<월>
  3. 반회장 및 반지도자 모임 : 오늘 공식미사 후(강당)
  4. 상관성당 강당, 교리실 건립에 어려움이 많아 협조  
바랍니다 ※ 매 미사 전후에 진입을 받습니다
  5. 4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 오늘 해성학교에서  
오전 8시 30분
  6. 차주 전례 : 해설-최정순  
독서-①박상기 ②홍윤자(안나)
- 지난주 봉헌금 : 369,230원

1. 교육분과회 : 다음주일로 연기합니다
  2. 4지구 중·고학생 체육대회 : 오늘 해성학교에서 있  
습니다. 많은 학부모들의 응원바랍니다  
※ 성모회에서 뒷바라지를 하겠습니다
  3. 중·고등학생 미사 :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있습니  
다. 특별한 분을 위한 특전미사도 되겠습니다
  4. 전례분과 위원회 : 내주에 있습니다
  5. 평화의 모후 브레시디움 탄생 : 부녀·청년들은 이 모  
임에 많이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주일학교 어린이미사 : 매주일 오후 3시 30분  
이 미사에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  
님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26,620원 교무금 : 218,000원